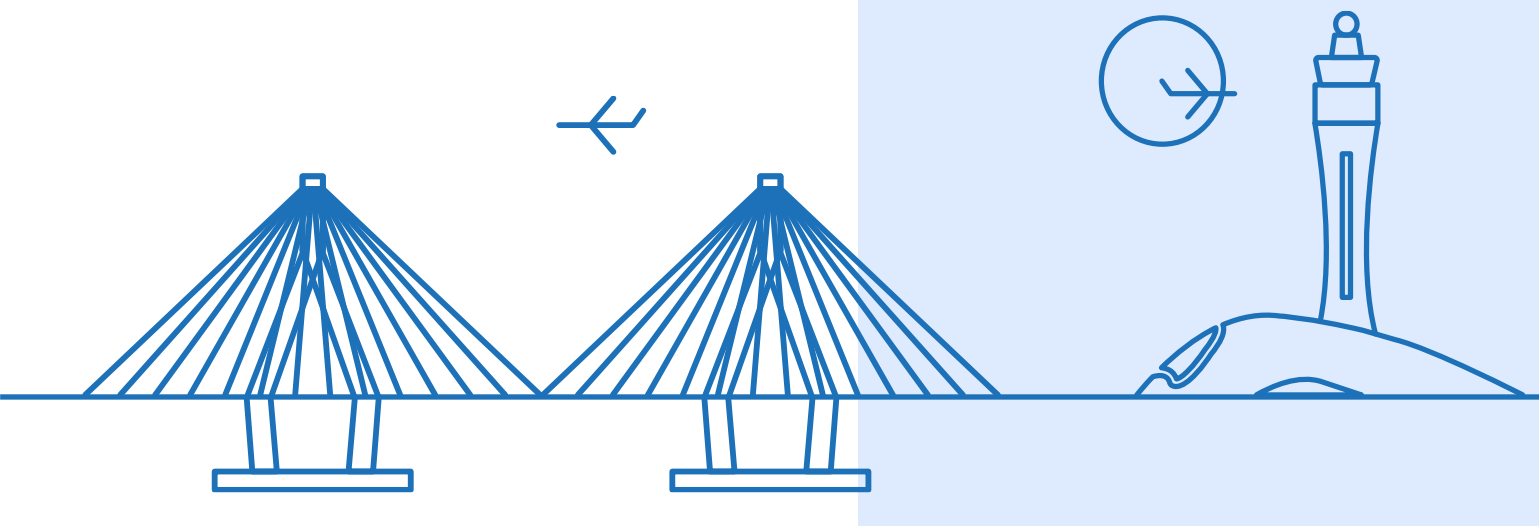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 01 국내 코로나19 현황
- 02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
- 03 국외 코로나19 현황
- 04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5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 06 [주간 special - 전문가칼럼] 마스크 의무 조정과 팬데믹의 결말 (글 정재훈 교수)
- 07 국내외 감염병 뉴스
- 08 [홍보자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안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 수칙



01

국내
코로나19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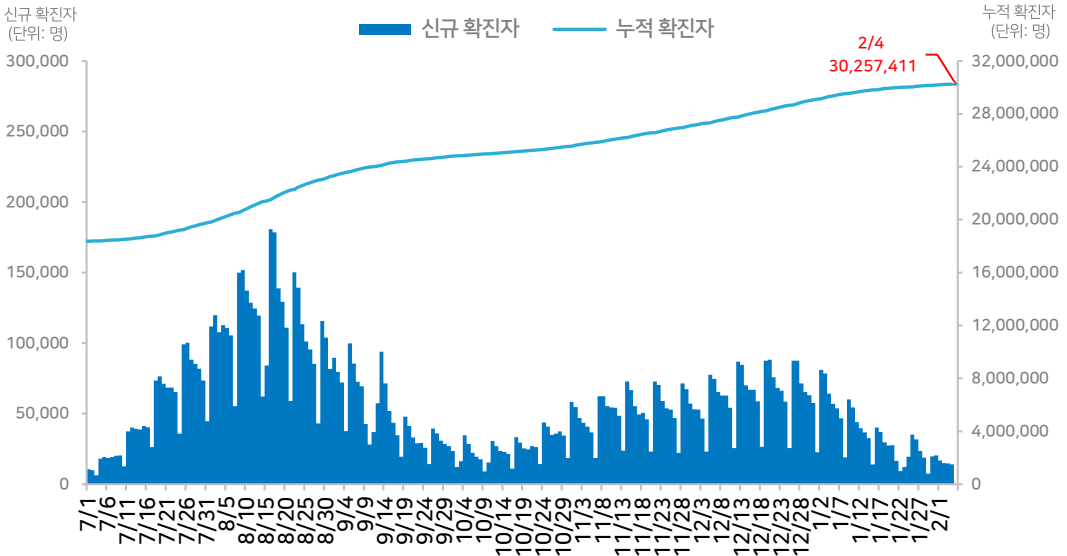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내 발생 현황

2023. 2. 5. 0시 기준 (단위: 명)

구분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사망	30	24	42	36	30	22	22
재원 위중증	402	387	359	345	339	325	313
신규 입원	41	72	97	77	86	82	50

국내 일별 확진자 발생 현황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전국 시도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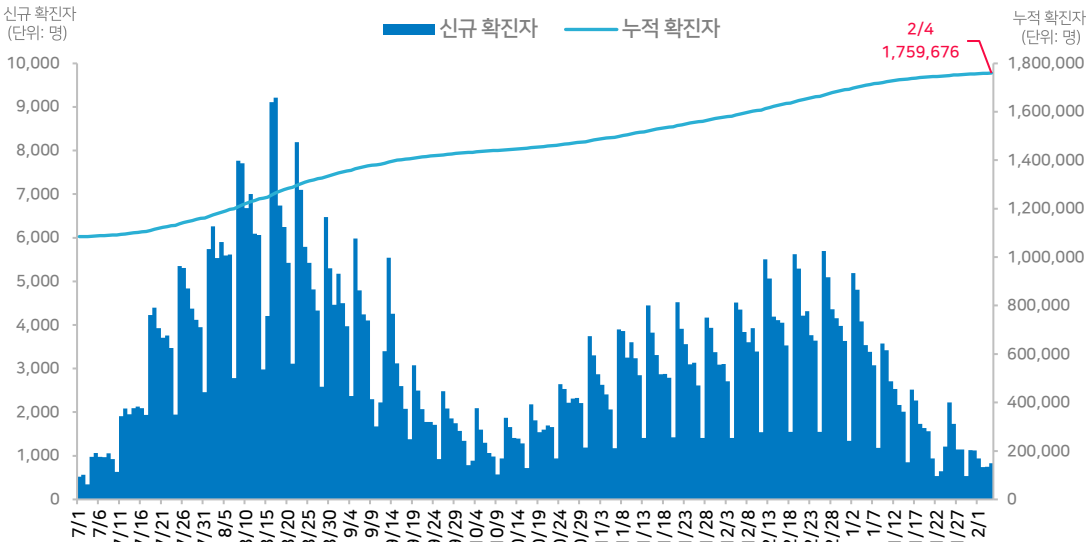
발생률 (명/인구 10만 명당)

2023. 2. 5. 0시 기준 (단위: 명, %)

서울	61,813
부산	53,723
대구	55,379
인천	59,683
광주	61,112
대전	60,788
울산	57,803
세종	64,452
경기	60,328
강원	57,918
충북	59,378
충남	57,783
전북	56,718
전남	53,975
경북	52,676
경남	54,734
제주	56,340

지역	확진자 누계	전국 비율	누적 사망자수
합계	30,257,411	100.0	33,596
서울	5,878,067	19.5	6,276
부산	1,799,933	5.9	2,785
대구	1,321,022	4.4	1,954
인천	1,759,676	5.8	1,853
광주	880,994	2.9	807
대전	882,800	2.9	923
울산	648,316	2.1	521
세종	239,695	0.8	55
경기	8,183,786	27.1	8,265
강원	891,066	3.0	1,286
충북	948,516	3.1	1,011
충남	1,224,566	4.0	1,538
전북	1,013,473	3.4	1,191
전남	989,264	3.3	938
경북	1,383,604	4.6	2,042
경남	1,813,990	5.9	1,870
제주	381,287	1.3	265
검역	17,356	0.1	16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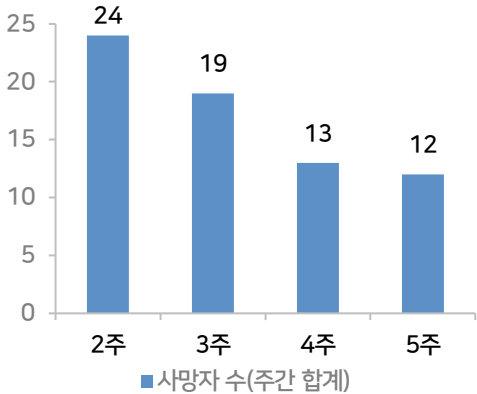
주간 발생 현황

2023. 2. 5. 0시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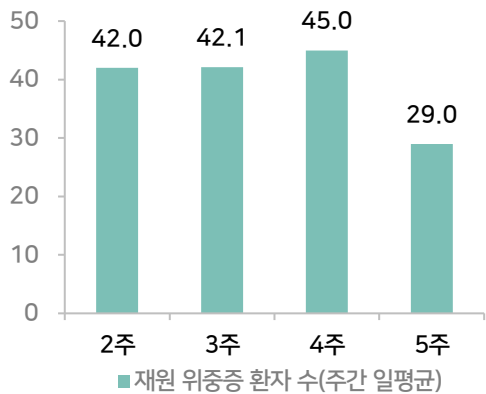
구분	사망	재원 위중증	신규 입원	확진
최근 7일간 일평균 (1.29~2.4.)	1.7	29.0	0.6	863.9
(누적)사망 1,853명			(누적)확진 1,759,676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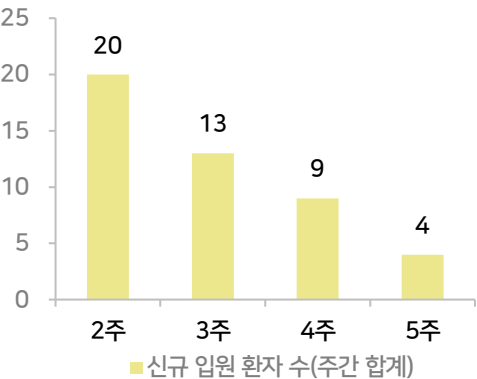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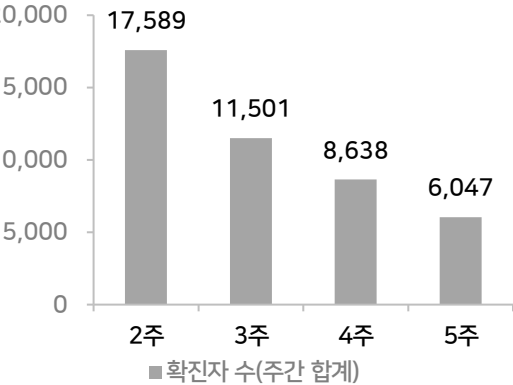
재원 위중증



신규 입원



확진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

주간 위험도 평가 지표

- ✓ 최근 1달간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최근 1주간(1.29.~2.4.) 일평균 확진자 수는 863.9명으로 직전 1주(1,234.0명)보다 370.1명(30.0%) 감소하였음
 -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 수는 9.1명으로 직전 1주(18.4명)보다 9.3명(50.4%) 감소
 - 60세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는 214.3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24.8%임
 - 18세 이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16.4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13.5%임

구분		2주 (1.8.~1.14.)		3주 (1.15.~1.21.)		4주 (1.22.~1.28.)		5주 (1.29.~2.4.)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국내발생	2,469.9		1,617.9		1,215.6		854.7	
	해외유입	42.9		25.4		18.4		9.1	
	전체	2,512.7		1,643.0		1,234.0		863.9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4,454		2,962		2,211		1,500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25.3		25.8		25.6		24.8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2,273		1,483		1,094		815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2.9		12.9		12.7		13.5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t)		0.83		0.76		0.74		0.86	
코로나19 예방접종률(%)		기초	동절기	기초	동절기	기초	동절기	기초	동절기
		86.5	10.0	86.5	10.3	86.5	10.5	86.5	10.7
		'23.1.16. 0시 기준		'23.1.25. 0시 기준		'23.1.30. 0시 기준		'23.2.6.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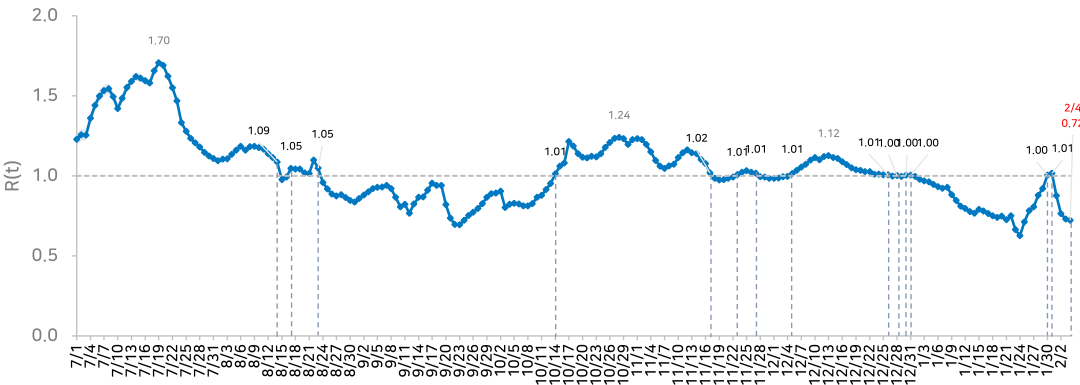
※ 2022.10.1.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가 해제됨
※ 2023.1.2.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시행함

1) 실시간 감염재생산수(Time-varying reproductive number, Rt): 특정 시점 t에서 인구집단의 평균 감염력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짐,
R = 1: 지역사회에 일정 수의 감염자가 유지됨,
R > 1: 감염병의 유행이 일어남

2) Cori 방법 이용, 각 점은 1일을 의미함

- ✓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t)
- 2020.1.20.~2023.2.4. 인천광역시 일별 확진자(확진일)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값임



병상 현황

2023. 2. 4. 18시 기준(단위: 병상, %)

구분	확보병상	사용병상		가용병상	
일반환자 지정 병상	203	10	4.9	193	95.1
중증환자 지정 병상	259	24	9.3	235	90.7
준중환자 지정 병상	506	59	11.7	447	88.3

국외 코로나19 현황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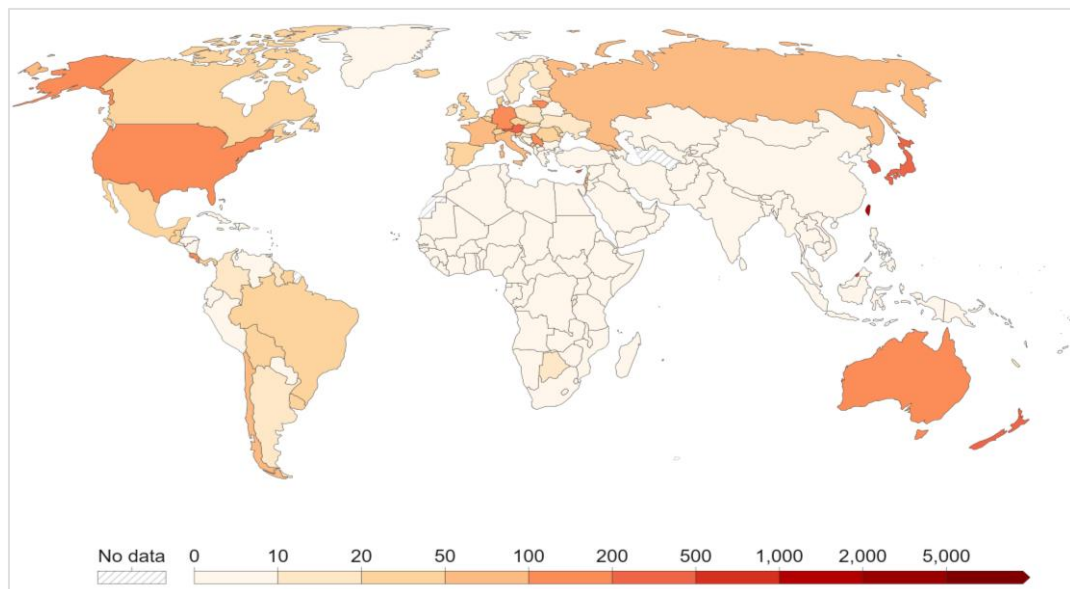
국외 주간 발생 현황

전 세계 주간 확진자 발생 규모

- 누적 확진자 671,604,232명, 누적 사망 6,844,415명
- 지난 1주간(1. 29. ~ 2. 4.) 일평균 신규 확진자 195,349명, 일평균 신규 사망 2,109명 발생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

2023. 2. 5. 0시 기준 (단위: 명/인구 100만 명 당)



주요 10개국 발생 현황

2023. 2. 5. 0시 기준 (단위: 명, %)

지역	누적 확진자	최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누적 사망자수	치명률
미국	102,590,201	45,446	1,111,495	1.08%
일본	32,734,388	41,802	69,297	0.21%
대만	9,645,862	27,134	16,614	0.17%
한국	30,257,411	15,401	33,596	0.11%
독일	37,822,577	11,872	166,128	0.44%
브라질	36,867,401	10,876	697,365	1.89%
러시아	21,677,861	7,924	387,279	1.79%
프랑스	39,576,514	4,043	164,435	0.42%
오스트리아	5,798,237	3,708	21,755	0.38%
멕시코	7,381,305	3,245	332,393	4.50%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3				동기간대비 (1-5주)				동기간대비 (1-5주)					
		5주	4주	3주	2주	2023	2022	증감	5년 평균	2023	2022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0	
2급	수두	14	13	24	19	86	84	▲	2	245.8	1,627	1,654	▼	27	4,987
	홍역									0.4					10
	콜레라									0.6	1	5	▼	4	9
	장티푸스									0.4	3	2	▲	1	4
	파라티푸스						1	▼	1	0.6	1	6	▼	5	7
	세균성이질						2	▼	2	0.2	7	3	▲	4	4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2.8	123	352	▼	229	331
	A형간염		2	2	2	9	27	▼	18	1.0	4	3	▲	1	26
	백일해									571	576	▼	5	813	
	유행성이하선염	4	5	8	5	27	29	▼	2	0.2					0
	풍진									5.6	41	29	▲	12	48
	수막구균 감염증									41	42	▼	1	31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		▲	2	0	
	폐렴구균 감염증		3	3		7	4	▲	3	3,295	2,406	▲	889	2,119	
	한센병									40	42	▼	2	28	
	성홍열						4	▼	4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42	31	61	63	256	223	▲	33						
	E형간염														
3급	파상풍									1	1	-	0	1	
	B형간염	1	1		1	3	2	▲	1	28	41	▼	13	36	
	일본뇌염														
	C형간염	6	8	15	19	60	69	▼	9	711	952	▼	241	988	
	말라리아			1		1		▲	1	5	3	▲	2	4	
	레지오넬라증					1	1	-	0	38	22	▲	16	38	
	비브리오패혈증										1	▼	1	0	
	발진열									1		▲	1	0	
	쯔쯔가무시증		1			1	3	▼	2	106	130	▼	24	90	
	렙토스피라증									2	4	▼	2	4	
	브루셀라증										1	▼	1	1	
	신증후군출혈열			1	1	2		▲	2	21	16	▲	5	22	
	CJD/vCJD									0.2	6	▼	6	5	
	뎅기열					1		▲	1	9		▲	9	10	
	큐열									2	3	▼	1	4	
	라임병									0.6				2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3		▲	3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2					0

- 5주차(2023. 1. 29. - 2023. 2. 4.)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3. 2. 8.(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2-2023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평균은 최근 5년(2019-2023)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간(2019-2023) 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증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인천광역시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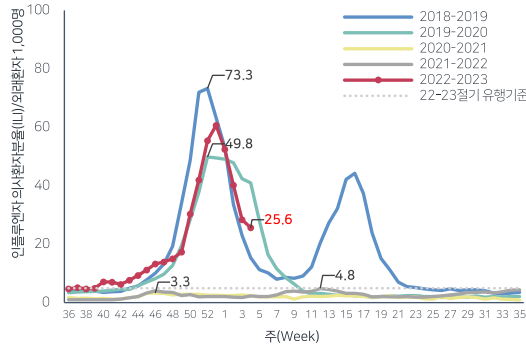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2-2023절기)

- (전국) 4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6명으로 전주(28.3명) 대비 감소
 - (인천) 4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6.2명으로 전주(37.8명) 대비 감소
- ※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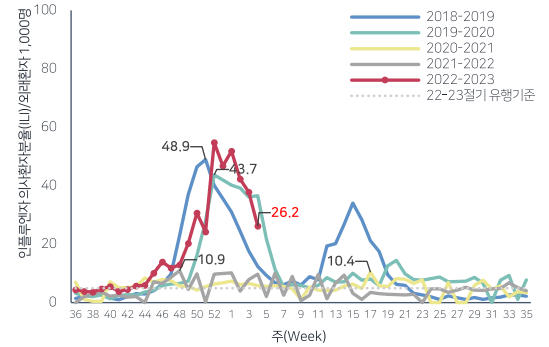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2년				2023년			
	50주	51주	52주	53주	1주	2주	3주	4주
전국	30.3	41.9	55.4	60.7	52.5	40.2	28.3	25.6
인천	30.7	24.2	54.7	46.8	51.8	42.3	37.8	26.2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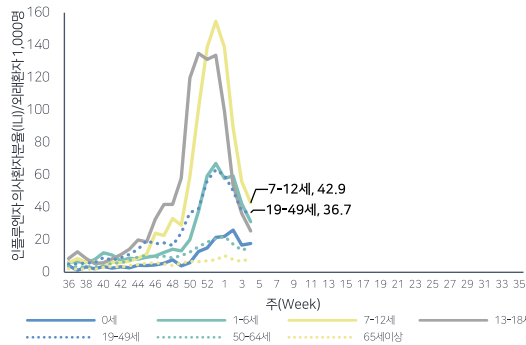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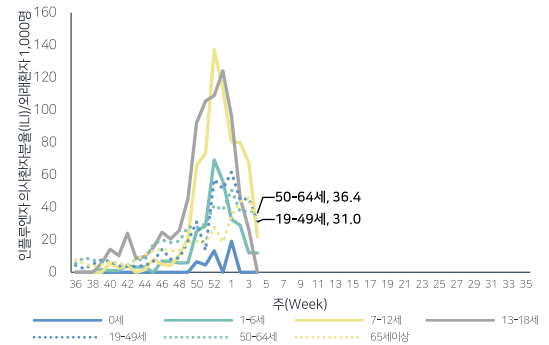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2-2023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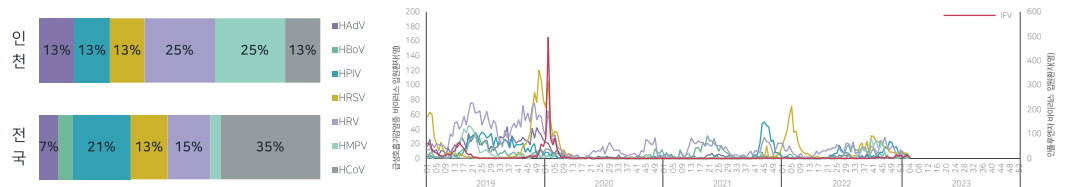
2022-2023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 (인천) 4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8명으로 전주(35명) 대비 감소
- (인천) 4주차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0명으로 전주(15명) 대비 감소

2023년 4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현황



- 4주차(2023.1.22.~2023.1.28.) 표본감시 현황은 2023.2.6.(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웹보고 및 2023년도 4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200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19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인천광역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11개
 - * 인천광역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13개

마스크 의무 조정과 팬데믹의 결말

글 정재훈 교수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그 근거

2023년 1월 30일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설은 (1)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과 약국, (3)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방역 정책 조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 유행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4) 높은 면역 수준 등을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아래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 2차 전 국민 코로나19 항체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중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분의 비율은 99%에 가깝고, 감염을 통해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신 분의 비율도 70% 수준입니다. 즉 2022-23년 사이 3번의 대규모 유행을 거치면서 국민의 면역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6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시기에도 중환자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도 중환자 병상 운용에도 큰 어려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도 1월에 접어들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평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의 의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이르게 의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비슷한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은 팬데믹의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였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엔데믹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의 시작입니다.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풍토병 정도의 일상적 발생을 말하는 본래의 뜻과 달리 우리 사회는 판데믹의 종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역학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면 그러한 면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엔데믹 전환은 코로나19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개인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의무의 조정은 마스크의 의학적 효용이 없다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밀집하고 감염에 노출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엔데믹으로 바뀌는 코로나19의 미래

엔데믹은 더 이상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거나 피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엔데믹은 언제든지 재유행이 가능한 동적 균형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규모는 유행마다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큰 피해를 보이는 재유행의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19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감염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또는 다시 한번 감염되리라 예상됩니다. 올해만 최소 3,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00명 이상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지난 3년보다는 적지만 단일 감염병으로는 매우 큰 사회적 피해입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엔데믹 전환은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향후 백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고위험군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연간 접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지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제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데믹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루어진 수많은 사회적 선택이 어떤 효과와 비용이 있었는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할 시간입니다.

끝이 없지만 끝에 가까운 전환점

코로나19가 판데믹이 된 순간부터 행복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불편한 결말에 이제야 도달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판데믹의 종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국민이 최소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감염병 뉴스

- [‘무료접종’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부모 85% "맞겠다" <2023-02-02 연합뉴스>](#)

로타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발열 등을 동반하여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선택 접종으로 백신 종류별로 2~3회 접종에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 선의 비용이 들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2일 공개한 2022년 국가예방접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5%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는 '접종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4%로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했다. 3월 시행 예정인 로타 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사업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 재감염 주기 '5개월→9개월'... "면역 상태 좋아진 덕" <2023-02-06 한겨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재감염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5개월에서 9개월로 늘었다. 반복된 백신 예방접종과 감염으로 국민의 면역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면역 효과 등이 재감염 기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오미크론 아래 변이들이 이제 거의 변이를 끝내는 단계이고, 지난해 여름 유행 때 면역이 이번 동절기까지 작동해 재감염 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재감염되는 평균 기간이 길어진 것은 그만큼 국민의 면역 상태가 좋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브리핑은 서면으로 재난문자도 중단 <2023-02-06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한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됐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도 서면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 안정으로 별도의 안건이 없으므로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확진 현황을 소개했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문자도 3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 문자의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확진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문자의 발송이 재난문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됐다.

- [마스크 해방에도 신규 확진자 5000명대'뚝' <2023-02-07 국민일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다. 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85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영향을 금방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간 관습적으로 착용해온 것 때문에 미착용으로 인한 효과가 폭발적이진 않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생기는 증가분을 상쇄하고 확진자 수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지영미 질병청장 "올해는 일상 회복 원년" <2023-02-08 국민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비상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호흡기 바이러스로 통합 관리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WHO의 해제 시점에 맞춰 우리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마스크 조정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외 감염병 뉴스

- [美 '코로나 보건비상' 5월 11일 종료 <2023-02-01 서울신문>](#)

미국이 2020년 3월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코로나19 검사 등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없어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및 사업장의 운영 제한도 발동되지 않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90일씩 계속 연장해 온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치료제를 제공하던 근거가 됐다. 따라서 오는 5월 11일 이후에는 미국민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23. 2. 6.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총 정리!



대중교통	 의무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항공기, 도선, 여객선, 전세버스, 통근버스 등)
	 권고 대중교통시설 내·외부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육시설	 의무 통학차량 안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권고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의료기관	 의무 보건의료 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제공 장소, 다인 병실
	 권고 연구동, 사무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와 무관한 건물 또는 층, 1인 병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비입소형 시설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권고 감염취약시설 중 비입소형 시설 (지역사회 재활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	 의무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권고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마트, 쇼핑몰	 의무 마트, 쇼핑몰에 있는 약국
	 권고 마트, 쇼핑몰 내 이동통로 등 약국 외 공간

*과태료 부과 예외, 원칙적으로는 착용 권고

2023.2.3.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최대한 하고,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
-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일반적으로 집진필터(헤파필터)는 6개월~1년 사이에 교체,
제조사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



실내 환기 생활화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해요!